

제목	중국 금융당국의 은행 건전성 관리 개편에 대한 평가
----	-------------------------------------

- ◆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012년 이후 11년만에 “**상업은행 자본 관리방법**”(이하 신자본관리법) **개편 방안을 확정하여 2024.1.1일부터 시행**
 - 신자본관리법은 **상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국경간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차별화된 규제 및 감독**을 실시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
 -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위험 노출 가중치** 측정을 위한 기초 자산 종류 및 LTV 비율 등 세부사항을 상세히 고려하도록 개정

[개 요]

-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 내 실정에 맞게 기존의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과 기타 관련 법규**를 통합한 개편 초안을 금년 2월 발표한 바 있으며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최종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11.1일)

* 《商業銀行資本管理辦法（試行）》(2012.6)

** 《商業銀行大額風險暴露管理辦法》(2018.4), 《商業銀行銀行賬簿利率風險管理指引（修訂）》(2018.5), 《商業銀行流動性風險管理辦法》(2018.5), 《系統重要性銀行相關規定》(2018.5) 등

- 신자본관리법은 **상업은행의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감독**하며,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위험 노출 기준, 분류 요구사항 및 위험 노출 가중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 또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측정 방법을 개정**하고,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부동산 유형, 대출 상환 출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다양한 위험 노출 가중치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주요 개편내용]

① 상업은행을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 1등급 은행은 규모가 크고 해외 업무가 많은 은행이 해당되며, 자본 관리 감독에 있어 국제 수준에 맞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
 - 2등급 은행은 규모가 작고 해외 업무가 적은 은행으로 비교적 간소화된 관리 감독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 3등급 은행은 규모가 더 작고 해외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으로 한층 더 간소화된 자본 측정 요건을 적용

신자본관리법상 상업은행 구분 기준

은행 구분	구분 기준		조건
	자산기준(I)	국경간 거래기준(II)	
1등급 은행	전년도말 총자산 500억 위안 이상	전년도말 대외부채가 300억 위안 이상으로 대외부채가 총자산의 10% 이상	조건 I 또는 II 해당시
2등급 은행	전년도말 총자산 100억 위안 이상	전년도말 총자산은 100억 위안 미만이지만 대외부채가 있는 경우	
3등급 은행	전년도말 총자산 100억 위안 미만	대외부채가 없는 경우	조건 I, II 동시 해당시

자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제6조), 한국은행 상해주재원 자체 정리

- 현재 1등급 은행은 56개*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금융당국은 1등급 은행의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3개 개발형 및 정책성은행, 6개 대형 국유은행 및 12개 주식제상업은행, 25개 도시상업은행, 10개 농촌상업은행 등이 1등급 은행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1등급 은행 지정이 예상되는 은행의 총자산은 285조 위안으로, 국내 은행 총자산의 약 93% 수준에 해당

- 1등급 은행의 경우 70개 이상 세부 자본 항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반면, 2등급 은행은 자본구성·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등 8개 항목을, 3등급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자본구성 등 2개 기본 항목만 공개하도록 변경

② 주거용 부동산 위험 노출 가중치의 세분화

- 리스크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유형·상환금 출처·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위험 노출 가중치를 설정
 - 이는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부실대출 위험에 노출된 악성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신자본관리법상 주거용 부동산 위험 노출 가중치 구분 기준

항목	현행	개편
1.1 대출 상환 자금 출처가 부동산과 무관한 주거용 부동산		
1.1.1 건전성 요구에 부합된 주거용 부동산		
1.1.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	50%	20% ↓
1.1.1.2 50%<LTV≤60%	50%	25% ↓
1.1.1.3 60%<LTV≤70%	50%	30% ↓
1.1.1.4 70%<LTV≤80%	50%	35% ↓
1.1.1.5 80%<LTV≤90%	50%	40% ↓
1.1.1.6 90%<LTV≤100%	50%	50%
1.1.1.7 LTV>100%	50%	거래상대방의 위험 노출 가중치 적용
1.1.2 건전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50%	거래상대방의 위험 노출 가중치 적용
1.2 대출 상환 자금 출처가 부동산과 관련된 주거용 부동산		
1.2.1 건전성 요구에 부합된 주거용 부동산		
1.2.1.1 LTV≤50%	50%	30% ↓
1.2.1.2 50%<LTV≤60%	50%	35% ↓
1.2.1.3 60%<LTV≤70%	50%	45% ↓
1.2.1.4 70%<LTV≤80%	50%	50%
1.2.1.5 80%<LTV≤90%	50%	60% ↑
1.2.1.6 90%<LTV≤100%	50%	75% ↑
1.2.1.7 LTV>100%	50%	105% ↑
1.2.2 건전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50%	150% ↑
1.3 통화 불일치가 발생한 개인 주거용 부동산 대출	50%	Min(통화 불일치 없는 가중치의 1.5배, 150%)

자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제71, 74조), 한국은행 상해주재원 자체 정리

③ 지방정부의 일반채권과 중소기업 위험 노출 가중치 하향 조정

- 지방정부의 일반채권 및 중소기업 등 중국 정부의 장기 발전전략에 부합한 분야의 위험 노출 가중치를 하향 조정
 - 기존 지방정부 일반채권과 전용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가중치 중 일반채권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20% → 10%)
 -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의 위험 노출 가중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여 실물 경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100% → 85%)

④ 공상기업 주식 투자의 위험 노출 가중치를 하향 조정

- 출자 전환(債轉股)과 부실자산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상기업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노출 가중치를 하향 조정(400% → 250%)
 - 대형 국유은행들이 공상기업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출자 전환을 추진하므로 대형 국유은행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

⑤ 개발형 은행 및 정책성 은행의 후순위채권 위험 노출 가중치 유지

- 일반 후순위채권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총손실흡수력(TLAC) 비자본채무도구의 위험 노출 가중치를 조정(100% → 150%)한 데 비해 개발형 은행 및 정책성 은행의 후순위채권 위험 노출 가중치는 변동이 없음
 - 이는 국내 은행들에 대해 개발형 은행과 정책성 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신자본관리법상 후순위채권 위험 노출 가중치 구분 기준

항목	현행	개편
1.1 개발형 은행과 정책성 은행의 후순위채권	100%	100%
1.2 상업은행의 후순위채권	100%	150% ↑
1.3 기타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	100%	150% ↑
1.4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TLAC 非자본채무도구	100%	150% ↑

자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제77, 78조), 한국은행 상해주재원 자체 정리

⑥ 은행권의 자산관리상품 투자에 대한 규정

-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 자료가 없어 위험 노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없는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할 경우 1,250%의 가중치를 부여

⑦ 규정 적용의 유예기간 설정

- 신자본관리법은 2024.1.1일부터 시행되나 손실준비(2년) 및 정보공개(5년)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

[평가]

- 금번 개편 방안은 2012년 6월 중국 금융당국이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을 최초 시행한 지 약 11년 만에 새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10여년간 경제 및 금융 형태와 상업은행 업무 모델 변화 등으로 리스크 감독이나 은행별 차등화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그동안 중소은행에 적용하는 자본규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금번 개편 방안에 대해 중국 은행업의 실질적 상황에 기반해 바젤Ⅲ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은행권의 리스크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은행이 실물경제를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또한 금번 개편 방안 시행으로 은행별 자기자본비율에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興業證券, CICC 등)
- 금번 신자본관리법은 바젤Ⅲ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인 동시에, 현재 및 향후 국내 은행권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의 성격
 - 각종 위험을 세분화하고, 위험 노출 가중치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은행의 경영 전략, 신용 정책, 자산 및 부채 배분, 리스크 조기 경보 및 성과 평가 등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CMS證券, Fitch Bohua 등)

- 위험 노출 가중치의 변동 측면에서 지방정부 일반채권, 고등급 신용채권, 정책성 금융채권, 개인주택, 제조업 등에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평가
 - 금년 초 의견수렴안과 비교할 때 대형 국유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중앙금융공작회의의 대형 국유은행이 '우수하고 강하게 발전'(做优做强)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한편 중소은행들이 지방정부 채무와 연계된 리스크가 증가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향후 중국 금융당국은 중소은행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기타 금융정책 측면에서도 대형 국유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여 은행 핵심자산의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